

빛고을대로, 자동차 전용도로 교통사고 '최다'

광주 자동차 전용도로 5곳 교통사고 분석해 보니

2021년 276건 중 98건 차지...하루 교통량만 25만3654대
노후화로 도로 파손 등 빈번...시, 안전시설물 정비 등 계획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2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유촌동 빛고을대로 출입구 인근에서 모닝 차량과 뒤따르던 그랜저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모닝 차량이 전복되면서 운전자가 전치 2주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고는 그랜저 차량 운전자가 미처 정제된 차량을 보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3일 오후 3시 50분께는 빛고을대로 우석교차로 인근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는 앞서 가던 승용차가 교통 정체로 급정거하자 뒤따르던 차량이 잇따라 추돌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으며, 60대 여성 운전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광주시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5개 노선 중 빛고을대로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최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빛고을대로, 무진대로, 하남진곡산단로, 빛가람정성로(국가지원지방도), 제2순환도로(문흥-두암IC 구간) 등 5개 노선의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빛고을대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광주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총 27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빛고을대로에서 98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무진대로에서는 91건, 하남진곡산단로에서는 57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빛가람정성로와 제2순환도로에서는 각각 14건의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빛고을대로 사고 다발 원인으로 이곳이 시내와 시외를 연결하는 '대동맥'이라 교통량이 많이 몰린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 2021년 광주시가 발표한 '교통관련 기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빛고을대로 초입에 있는 계수교차로는 교통량이 하루 평균 25만 3653대를 기록했다. 광주 내 교차로 중에서 가장 많은 교통량이다. 빛고을대로에 속해있는 우석교차로 또한 하루 평균 교통량 21만 7709대로 교통량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빛고을대로가 지난 2009년 만들어진 이후 노후화돼 포트홀 등 도로 파손, 차선 마모 등

문제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는 올해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 포장을 새로 하고 8927만원을 들여 노면 표시를 재도색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예산 1억 8500만원을 투입해 도로표지를 LED 또는 발광형으로 교체하고 각종 안전시설물을 일체 정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신규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수는 "빛고을대로는 교통량이 많은 만큼 사고 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고속도로에서 광주 시내로 진입하는 구간이라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에서 80km로, 60km로 급속히 낮춰지는 등 편차가 커 사고 위험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동식 무인카메라나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 운전자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고 데이터를 유형별로 정리해 면밀한 분석을 거쳐 효과적인 사고 저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시교육청 '광산고' 설립 추진 하남지역에 2027년 개교

광주시교육청이 고등학교가 부족한 광산구 지역에 가정 '광산고' 설립을 추진한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광산구 하남지역에 '광산고' 설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교육청은 2009년 문을 닫은 옛 하남초등학교 부지에 18학급(학생 504명) 규모로 광산고를 설립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시설 예산으로 3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산고가 설립되면 광산구 지역의 과밀학급과 원거리 고교 배정 민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광산구 소재 중학교는 26개 인 반면 일반계 고교는 11개에 불과해 지난달 초 신학기에 956명의 학생이 북구와 서구 지역 고교로 배정됐다.

시교육청은 교육환경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 2000만원을 책정하고 다음 달 의회를 통과하면 학교 시설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구를 지켜요 '유아 기후생태 놀이교실'에 참가한 예일유치원 어린이들이 24일 광주시 북구 충효동 광주호 호수생태원에서 공놀이를 즐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5·18 발포명령자·암매장 진실 밝혀질까

특전사동지회 '5·18피해 자체 진상조사위' 발대

(사)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가 24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와 함께 '5·18피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이하 자체조사위) 발대식을 열었다. 자체조사위는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을 만나 발포명령자와 암매장지, 시신 처리 방법 등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5·18 진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다.

최병관 제1공수여단 출신 예비역 중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3공수여단, 7공수여단, 11공수여단 출신 특전사 중에서 조사위원을 선출해 총 13명 조사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잠정적으로 오는 2024년 12월 말까지다. 계엄군을 직접 만나 면담하고 당시 수행했던 작전내용을 팀 단위로 기록해 5·18공법단체에 전달하는 식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최병관 자체조사위 위원장은 "43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당시 상황을 상세히 파악해 5·18 민주화 운동의 아픈 역사를 바로잡고 용서와 화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발대식에서 나온 최병관 위원장의 일부 발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병관 위원장은 "지난 2월 19일 대국민선언 당시 '질서 유지를 위한 출동' '저희도 피해자'라고

언급한 점은 죄송하게 됐다"면서도 "조사를 통해 당시 지휘계통에 의해 부당한 명령으로 광주에 투입됐다"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요원들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국방부가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한 사실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학생·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폭동 진압 작전으로 전환된 과정도 상세히 분석할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학술 주범인 전두환씨가 "시민들이 먼저 폭력을 행사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무력 진압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유사한 표현이란 비판이 나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61명 검거

광주·전남경찰 200일간 특별단속

광주·전남 경찰청이 200일간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61명을 검거했다.

광주·전남 경찰청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올해 3월까지 200일간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한 결과 광주 11명, 전남 50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 생활 속에 남아 있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기 위해, 4대 부패범죄에 대해 총 15개 분야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4대 부패범죄는 ▲공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

해하는 '금품 수수'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재정 비리' ▲공직 권한을 남용하는 '권한 남용' ▲각종 이권을 사고파는 '부정 알선·청탁' 등이다.

유형별로는 재정비리가 22명(광주 2명, 전남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권한남용 20명(광주 5명, 전남 15명), 금품수수 13명(광주 2명, 전남 11명), 부정알선·청탁 6명(광주 2명, 전남 4명) 순이다.

이번 적발에서 광주시 한 자치구의 국장이 권한을 남용해 하급자에게 불법으로 운영중인 골재선별업체의 등록신고를 수리하게 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 국장은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청은 전국적으로는 총 1727명을 검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2일만에 마약사범 11명 붙잡아

광주경찰 합동단속 추진단

마약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광주경찰청 마약범죄합동단속 추진단(TF)이 활동 12일 동안 마약사범 11명을 검거했다.

광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TF 구성 이후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11명(내국인 9명·외국인 2명)을 잇따라 검거해 그중 4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추가로 55건의 마약범죄에 대해 64명을 수사중이다.

불법체류자인 베트남 출신 A(32)씨는 같은 베트남 출신 마약 판매책(여·30)에게 9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입해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지난 3일 광주시 광산구 길거리에서 시가 28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베트남인 B(여·29)씨도 지난 20일 구속됐다.

내국인 C(51)씨는 다른 마약사범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고, 본인도 직접 투약하다 검거됐다. 경찰은 C씨 검거 후 지역 거점 마약 유통·판매 일당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SNS를 통해 60만원 상당의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내국인 남성 2명을 추가 검거하고 이중 D(23)씨를 지난 20일 구속했다.

광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투약이 광범위하게 확산 중이다"며 "마약사범에 대한 신고 보상금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